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식을 갖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를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노사단체 추천을 통한 안전 관련 법·공학 전문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반은 우선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국제 표준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노동자도 안전보건 확보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관계 법령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반의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발표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안전보건교육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를 3월 20일 배포했다.

교육 가이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누구나 쉽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보건교육의 정의, 사전 준비, 교육 방법, 효과검증 순으로 구성되었다.

▲안전보건교육의 정의에는 안전보건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종류, 강사 자격, 교육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사전 준비에는 알차고 유용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위해 교육에 앞서 해야 할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방법, 업종별 위험 기계·기구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육 방법에서는 교육 주제, 환경 마련, 강사 선정, 진행 방법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위험성평가 기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 사업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효과검증에서는 교육실시 후 성과검증 및 환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록했다.

이번 교육 가이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http://www.moel.go.kr))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http://www.kosha.or.kr))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